

# 金元代까지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金峰鉉·李海福·申榮日\*

## 至金元代對傷寒論治法的研究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金峰鉉·李海福·申榮日

晋唐時期對傷寒論治法的研究有: 王叔和運用當時盛行的“汗, 吐, 下, 溫, 灸, 刺, 水, 火”等八法, 歸納了傷寒論的證治經驗; 孫思邈根據自己的臨床經驗, 把傷寒論的太陽病篇進行了“以方名法, 按法類證”, 這是該時期對傷寒論六經病治法的代表性的研究. 這種研究有原始和歷史的局限性, 從中國醫學對傷寒論六經病治法的研究歷史考慮, 這成爲了後世的治法研究的先驅者, 具有非常大的影響.

在宋代對傷寒論治法的研究上, 起關鍵作用的醫家有龐安時和朱肱. 他們對傷寒論治療原則的闡發, 對六經病的分析歸納, 以及提示具體的治法上, 都做出了貢獻. 龐安時主張了應按人, 地, 時制定治療的思想; 朱肱以“病有標本, 治有先後”爲治療原則, 與傷寒論相結合進行治療, 對後世醫家產生了影響.

到了金元代成無己, 劉完素, 王好古等, 對內經內容各自以思想觀點, 分別按辨證論治總結了六經病的治療規律, 同時對證候和方藥進行了分析, 闡明了具體的六經病治法的病理轉歸, 都有其獨創性. 成無己用內經解釋了傷寒論, 總結解肌 發汗 重劑發汗 解表行水 和解 攻痞 止熱 滲泄等治法, 爲後世對傷寒論治法的研究开辟了道路, 因而更加明確和解的概念, 并應用至今. 劉完素提倡了主火論, 重視了傷寒論汗, 吐, 下三法的研究, 創立了辛涼解表法, 對後世溫病治療的發展帶來了很大影響. 王好古作爲易水學派, 運用臟腑的寒熱虛實理論結合藥味效能, 探索了傷寒論六經病的治療規律, 強調了陽明病的益津液的治療原則, 對後世研究傷寒論治法給與了很大的啓發. 以上對傷寒論治法研究, 不僅成爲當時臨床醫學的先導, 而且成爲了後世研究傷寒論治法的基礎.

關鍵詞: 八法, 龐安時, 朱肱, 成無己, 劉完素, 王好古,

## I. 序論

『傷寒論』의 重要한 업적은 『內經』의 基本이론을 臨床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한의학 辨證論治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傷寒論』은 條文式的 醫學書籍이기 때문에 本文에서 직접 理論을

설명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여러 가지 證候에 대한 이론과 부위에 대해서도 具體的인 分析和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治療原則과 사용되는 方藥도 證候와 이론상 충분히 說明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문 자체를 통한 辨證施治의 설명이 쉽지는 않다.

이 書籍은 비록 王叔和가 整理하였지만 兩晋南北朝에서부터 隋唐五代의 七八百年동안 널리

\* 交信著者: 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1-330-3511, maggie@dsu.ac.kr

전과되지 못하였다. 宋代以後에 비로소 많은 醫家들이 整理 研究하여 『傷寒論』의 辨證論治方法을 改發 補充하여 진정으로 臨床에서 辨證施治하는데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金元代까지 醫家들의 『傷寒論』 治法 研究에 대한 것을 논하고자 한다.

晉唐시기에는 傷寒論을 중심으로 하는 外感病 治療가 主流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傷寒論 六經病에 대한 治法은 특별하게 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시기에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治法에 따라 傷寒論의 證治 經驗을 分類하고 歸納하여 臨床에 傷寒論의 證治法則을 응용하는 方便이 되었다.

宋 金元時期에 傷寒論은 광범위하게 傳하여져서 臨床에 있어서 傷寒論의 證治經驗과 外感病 治療에 이미 流行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傷寒論의 六經病 治法에 대한 연구는 醫學理論과 臨床醫學에 대단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宋 金元時期에 傷寒論 治法에 대한 研究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晉唐時代 研究의 基礎위에 당시 의학의 실천적 발전을 결합시켜 傷寒論에서 제시한 治療原則과 具體的 治法에 대해서 명확한 闡述하고 계통적으로 귀납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內經의 이론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內經의 基礎 위에서 學術思想을 발전시켜 傷寒論의 證治經驗을 분석하고 연구했으며, 傷寒論의 辨證論治法則을 인식하여 六經病의 治法을 총결한 것인데, 즉 藥物의 效能과 病理機轉의 관계에 따라 傷寒論 治法의 病理機轉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著者는 金元代까지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여러 醫家들의 이론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晉唐時期의 六經病 治法에 대한 認識

東漢末年에 저술된 傷寒雜病論은 晉唐時代에 太醫令을 지낸 王叔和가 外感病에 관한 것만을 모아 傷寒論으로 편찬한 후 비교적 광범위하게 유행 전과되었다. 傷寒論 가운데 外感熱性病을 治

療하는 證治 經驗은 일찍이 臨床에 응용되어 效果를 많이 보았다. 이로 인하여 이 책은 “衆方之祖”, “特有神功”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晉唐時期 내내 醫學은 전쟁 등 사회 각 방면의 영향 때문에 발전이 비교적 완만하였으며, 더욱이 기본이론의 연구방면도 현저한 발전이 없었다. 이에 더해 傷寒論의 문장이 오래되고 심오하여 傷寒論의 證治 經驗이 醫家들에 의해 이용되었지만 始終 外感病을 治療하는 主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시기에 傷寒論의 六經病 治法에 대한 研究는 넓고 깊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古代 醫書를 볼 때,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한 사람은 晉代 王叔和와 唐代 孫思邈이므로 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 1) 王叔和

王叔和는 傷寒論을 정리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脈經에서 傷寒論의 주요 내용을 분류하여 “病不可發汗證, 病可發汗證; 病發汗以後證, 病不可吐證, 病可吐證; 病不可下證, 病可下證; 病發汗吐下以後證; 病可溫證; 病不可灸證, 病可灸證; 病不可刺證, 病可刺證; 病不可水證, 病可水證; 病不可火證, 病可火證; 熱病陰陽交并少陰厥陰竭盡生死證” 등의 18篇 내용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王叔和가 治法에 따라 傷寒論을 연구한 주요 부분이다. 그는 治法에 따른 六經病의 證治를 연구하여 傷寒論에서 사용한 汗, 吐, 下, 溫, 灸, 刺, 水, 火法 등을 總結하여 논술하고 있으니, 後世 醫家들이 “論治”하는데 傷寒論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을 세웠다.

#### 2) 孫思邈

唐代 孫思邈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研究는 그의 著作인 『千金要方』과 『千金翼方』 中에 나타나 있다. 그는 한편으로 前人의 傷寒論 治法 방면의 精微로운 것과 有效한 方劑를 수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臨床 經驗에 근거하여 “方證同條, 比類相附”의 원칙아래 傷寒論 證治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千金要方』 第九 傷寒例第一에 傷寒論 가운데 傷寒例의 대부분의 내용과 王叔和의 汗, 吐, 下法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王叔和가 이르기를 무릇 傷寒病은 風寒의 邪氣가 腠理로 들어가 精氣와 더불어 分爭하면 營衛가 否隔하여 不通한데서 기인한다. 病에 걸린지 1,2일에는 邪氣가 皮膚之間에 있으므로 頭痛惡寒, 腰背強重 等證이 나타나니 이는 邪氣가 表에 있는 것이므로 發汗시키면 낫는다. 3일 이상이 되면 邪氣가 上部로 침범하여 心胸부에 머물러 頭痛 胸中滿 等證이 나타나니 마땅히 吐法을 쓰면 낫는다. 5일 이상이 되면 邪氣가 臟으로 내려가 沈結하여 腹脹身重, 骨節煩疼 等證이 나타나니 下法을 쓰면 낫는다. 그러므로 病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湯藥을 잘못 사용하여 胃氣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內經에서는 ‘脈微不可吐, 虛細不可下, 夏日亦不可下’라고 하였으니 이는 醫師가 반드시 禁해야 하는 大戒이다. 脈은 浮脈 沈脈으로 쉽게 변화할 수 있는데, 或 병을 얻은 지 수일이 넘었는데 환자가 醫師에게 얼마 안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病이 이미 오래되어 疹瘰가 結成된 것을 볼 수 있다면 發汗解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診脈하고 疾病의 形勢에 따라 치료해야 할 것이니, 次第에 얽매어 要點을 놓쳐 禍를 부르는 過誤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傷寒次第에서 三日以內에 發汗시킨다는 것은 바람을 쏘이기 위해 옷을 벗거나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자다가 때마침 虛邪賊風의 邪氣에 노출되면 쉽게 邪氣가 침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生冷한 飲食을 過多하게 복용하여 腹脹이 생기고 頭痛 身溫 脈實大한 자는 證에 따라 吐法이나 下法으로 치료해야지 發汗을 시켜서는 안될 것이다.”<sup>1)</sup>

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王叔和가 後世醫家를 위해서 傷寒論의 汗, 吐, 下 三法의 機轉, 禁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현재 王叔和의 저서에서는 전해지지 않는 것인데 千金要方에 실려 있으니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외에 그는 “發汗第五”, “宜吐第七”, “宜下第八” 및 “發汗吐下後第九” 등의 四節 속에 傷寒論의 桂枝湯, 麻黃湯, 大青龍湯, 葛根湯(解肌湯), 瓜蒂散, 抵當湯, 抵當丸, 大承氣湯, 竹葉石膏湯(竹葉湯), 桂枝二麻黃一湯, 小青龍湯, 麻杏石甘湯, 厚朴生薑半夏甘草人參湯(厚朴湯), 眞武湯(玄武湯), 葛根芩連湯, 苓桂朮甘湯(茯苓湯), 大陷胸丸, 大陷胸湯, 甘草瀉心湯, 生薑瀉心湯, 白虎湯 등 21方的 證治 經驗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桂枝湯, 瓜蒂散, 承氣湯, 抵當湯의 證治는 매우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가 傷寒論의 汗, 吐, 下 三法을 重視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의 晩年 著作인 千金翼方 中에는 傷寒論 治法에 대한 진일보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그는 傷寒論의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의 六經分證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시에 자신의 經驗을 結合하여 太陽病에 대하여 “以方名法, 按法類證”의 방법을 採用하여 거듭 새롭게 歸納시키고, 傷寒論의 太陽病上中下三篇을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 太陽病用麻黃湯法第二, 太陽病用青龍湯法第三, 太陽病用柴胡湯法第四, 太陽病用承氣湯法第五, 太陽病用陷胸湯法第六, 太陽病雜療法第七 등의 7개 方面으로 分類 統合하였다. 이러한 方에 따라 法을 정하고 方에 의한 條文 배열은 傷寒論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證을 同一한 治法으로 歸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

病之狀候, 不可亂投湯藥, 虛其胃氣也. 經言: 脈微不可吐, 虛細不可下, 又夏日亦不可下也. 此醫之大禁也. 脈有沈浮轉能變化, 或人得病數日, 方以告醫, 雖云初覺, 視病已積日在身, 其疹瘰結成, 非復發汗解肌所除. 當診其脈, 隨時形勢救解求免也. 不可苟以次第爲固, 失其機要, 乃致禍矣. 此傷寒次第, 三日以內發汗者, 偶當風解衣, 夜臥失覆, 寒溫所中, 并時有疾疫賊風之氣而相染, 易爲惡邪所中也. 至于人自飲食生冷過多, 腹脹不消, 轉動稍難, 頭痛身溫, 其脈實大者, 便可吐, 下之. 不可發汗也.

1) 孫思邈. 備急千金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74.  
夫傷寒論者, 起自風寒, 入于腠理, 與精氣分爭, 營衛否隔, 周行不通. 病一日至二日, 氣在孔竅皮膚之間, 故病者頭痛惡寒, 腰背強重. 此邪氣在表, 發汗則愈. 三日以上, 氣浮在上部, 填塞胸心, 故頭痛胸中滿. 當吐之則愈. 五日以上, 氣沈結在臟, 故腹脹身重, 骨節煩疼, 當下之則愈. 明當消息.

편 하나의 主方과 이와 相關된 加減方劑는 한 종류로 合併하여 臨床上 傷寒論을 운용하는데 편하게 만들었으니, 그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研究는 독창적이며 後世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그는 脈經 中の 傷寒論 證治 經驗의 治法 歸類를 모방하여, 千金翼方의 “傷寒宜忌” 中에 “忌發汗, 宜發汗; 忌吐, 宜吐; 忌下, 宜下; 忌溫, 宜溫; 忌火, 宜火; 忌灸, 宜灸; 忌刺, 宜刺; 忌水, 宜水; ” 등 15項을 이용하여 脈經 中の “汗, 吐, 下, 溫, 灸, 刺, 水, 火” 8法의 운용과 禁忌를 진일보 발전시켰다. 또한 그는 “무릇 處方을 선택하는 큰 의의는 不過 三種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는 桂枝湯이요, 둘은 麻黃湯이요, 셋은 靑龍湯이다. 이 三方이 모든 傷寒病을 치료하는데 나타나 있지 않다. 柴胡湯 等の 諸方은 모두 吐 下 發汗 後에 풀리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니 正法은 아니다.” 또한 “일찌기 모든 의사들이 傷寒을 치료함에 오직 大靑 知母 等の 寒涼한 藥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는 仲景의 本意에 相反하는 것으로 投藥을 하더라도 百에 하나의 效과도 없다.”<sup>2)</sup>라고 하여 자신의 臨床經驗에 근거하여 麻黃, 桂枝, 靑龍의 3方이 傷寒을 治療하는 正法이며 그 나머지는 正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당시의 醫生들이 寒涼藥으로 傷寒을 治療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상은 모두 孫思邈이 傷寒論의 治法을 연구한 것으로 특히 그 中 傷寒을 治療함에 桂枝, 麻黃, 靑龍의 3方 外의 나머지는 正法이 아니라는 思想은 後世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 2. 宋金元時代의 六經病 治法 研究

宋 金元시대는 中國醫學의 理論과 實踐이 發展한 重要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傷寒論은 宋代의 林億, 高保衡등이 校訂刊行한 後 광범하게 유행하여, 臨床醫學 學習에 傷寒論의 證治 經驗을 제공하는 方便이 되었다. 同時에 臨床醫學의 발전으로 臨床醫家들에 의한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가 날이 갈수록 重視되었다. 이로 인하여 中國醫學의 辨證論治의 基礎를 다지게 한 傷寒論은 이 시기에 醫學理論 研究의 주요 목적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傷寒論의 理論 研究와, 傷寒論의 外感病을 治療하는 證治 經驗을 運用하는 것이 선풍적으로 유행하였다. 이로 인해 晉唐시기때 보다 傷寒論 六經病에 대한 治法 研究가 넓고 깊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傷寒論 治法 問題를 다룬 전문 서적은 아직 없었고, 당시 醫家들의 傷寒論 著作 中에 散在해 있었다. 宋代의 傷寒學者들은 傷寒論의 注釋, 整理, 補充에 비교적 중점을 두었고, 金元代 醫家는 學術流派가 생겨 各者의 學術見解를 바탕으로 傷寒論의 證治 經驗을 分析 認識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治法에 대한 研究 現況을 이 두 方面으로 分別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 (1) 宋代 醫家의 六經病 治法 研究

#### 1) 龐安時

龐安時は 宋代의 著名한 傷寒論 研究家 中の 한 사람으로 그의 著書인 『傷寒總病論』에는 傷寒論에 대한 研究와 傷寒論을 이용한 證治 經驗에 대해 論述하고 있다. 六經病의 治法 문제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臨床經驗을 근거로 傷寒論의 治法을 論述한 것이 있으며, 또한 자신이 傷寒論을 研究하여 얻은 것을 바탕으로 六經病의 治法에 대하여 論述한 것이 있다.

그는 王叔和의 傷寒論에서 “土地는 溫涼 高下가 같지 않아 여기에서 나는 物性에는 剛柔가 있고 음식과 거처도 또한 다르니 이러한 까닭에 黃帝는 四方을 들어 질문하였고 岐伯은 四治의 法을 세웠다. 이는 後賢을 가르켜 萌매함을 깨우치는 것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마땅히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한다.”<sup>3)</sup>를 인용하고, 그 뒤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叔和의 圓機를 누가 능히 따를 수 있으리요. 桂枝湯은 西北 두 지방에 거처하는 사람에게는 四時 내내 투여하더라도 효과가 있으나 江淮사이의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는 冬春

2) 孫思邈.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7.

3) 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3.

에나 쓸 수 있으니 春末에서 夏至 以前까지는 桂枝湯, 麻黃湯, 靑龍湯에 黃芩을 가하여 써야하며, 夏至 以後에는 桂枝湯에 證에 따라 知母, 大靑, 石膏, 升麻등을 가하여 發汗시켜야 한다. 만약 時行寒疫이나 환자가 원래 虛寒한 者는 古方을 加減없이 써야 하며 夏至 以後에는 모름지기 白虎湯을 써야하지만 白虎湯은 汗後에 쓰는 解表藥인 까닭에 表邪를 驅逐할 수 없으므로 中暈이 변하여 暑病이 된 것에는 맞지 않다. 겨울이나 이른 봄의 寒氣가甚한 때는 잘못 汗下하면 狂燥證으로 변하니 마땅히 內熱을 치료하여야 하며 時令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南方의 따뜻한 곳은 寒氣로 인한 질병이 없으며 地機가 藏하지 못하고 蟲類가 泄毒하며 嵐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지 말고 다른 治法을 찾아야 할 것이다.<sup>4)</sup>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땅에는 南北이 있고 하늘에는 四時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強弱이 있고 傷寒을 치료함에는 마땅히 天地人으로 인하여 각각 다름이 있지만, 또한 時令에만 구애되지 말고 마땅히 因證施治해야 한다고 認識한 점이다. 이는 모두 龐氏가 傷寒論 證治 經驗을 운용하여 體得한 것으로 後世 治療原則을 세우는데 자못 영향을 주었다.

그는 傷寒論 六經病의 구체적인 治法을 總括하여 “發于陽者, 隨證用汗藥攻其外, 發于陰者, 用四逆輩溫其內”라 하여 六經病 모든 治法을 개괄하였다. 그후 “凡陽明病俱宜下, 唯中寒惡寒爲病在經, 與太陽合病屬表, 可發其汗.” “少陰正得弦脈……多宜和表, 鮮有汗證.” “凡少陰病, 四逆者, 宜溫之.”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六經病 治法의 주요 大綱을 논술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晉唐時代와 비교하면 진일보 발전한 것으로, 그는 汗下 兩法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分析하여 “무릇 發汗을 시킬 때는 腰以上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불을 덮어도 되지만 腰以下는 땀이 잘 나지 않는 곳이므로 두텁게 덮어야 한다. 腰以下 半身이 땀이 나지 않으면 病證이 풀리지 않아 發

汗을 시킨 뒤라도 病證이 남아 있으므로 三日 內에 두세번 發汗시켜 腰脚까지 모두 땀이 나도록 해야한다. 만약 病이 낫지 않으면 陽明으로 轉裏한 것이니 바로 下시켜야 한다. 設令 下後에도 풀리지 않으면 表裏의 邪가 더욱 깊어진 것이니 脈證을 보아 調治하고 七日後에 邪氣가 一周하면 正汗法을 쓰는 것이 좋다. 發汗後에 다시 汗法을 쓰지 말라는 것은 처음에 發熱惡寒한 것이 發熱而燥로 되고 脈浮大한 것이 洪實이나 或 沈細數으로 되며 神志에 이상이 없던 것이 狂語로 되어 胃實陽盛之證으로 변한 것이니 日數의 次第에 구애 없이 바로 下之해야한다.<sup>5)</sup>”라고 하였다. 그의 汗下 兩法에 대한 分析은 傷寒論의 證治經驗을 臨床에 응용하여 체득한 것인데 이러한 체득은 이미 汗下 兩法에 대한 內經의 “三日以內可汗, 三日後可泄”의 간단한 認識 수준을 뛰어 넘어 傷寒論의 汗下 兩法을 辨證論治의 수준으로 높여 놓았으니 後世에 傷寒論의 治法을 연구하고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 朱肱

朱肱은 宋代의 著名한 傷寒論 연구가였으며, 傷寒論 연구에 있어서 後世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傷寒論 六經病 治法에 대한 주장은 龐安時와 유사하였으나 이보다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類證活人書』에서 龐의 주장을 인용한 것 外에 傷寒論의 “發汗”, “和解”, “攻下” 등의 治法에 대해 자세하게 論述하고 있는데, “發汗”, “和解”를 논술하면서 “傷寒標證에는 모름지기 榮衛 淺深을 잘 살펴야한다. 仲景은 正發汗시키는 湯劑를 두었으니 麻黃湯, 桂枝湯, 大靑龍湯이 이것이며, 表邪를 和解하는 方劑는 小靑龍湯, 桂枝麻黃各半湯, 白虎湯, 桂枝二越婢一湯, 柴胡桂枝湯, 小柴胡湯과 같은 類이다. 後人이 寒熱淺深과 藥性緊慢을 살피지 않고 一律으로 投藥하여 이로 인해 간혹 치료하기도 하였지만 天傷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往往 發汗후에 正氣가 虛乏하여 勞復證에 이르고 或 百病으로 변하여 수명을 재촉하거

4) 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3.

5) 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

나 치료할 수 없게 만드니 이는 모두 과도하게 汗下하여 陰陽이 枯竭하고 血氣가 羸損하여 禍를 부른 것이다. 만약 가벼운 질병이면 和解하여 榮衛를 조화시켜 津液을 통하게 하면 스스로 낫을 수 있다.<sup>6)</sup>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攻下”를 論述하면서 “傷寒의 裏證은 마땅히 熱氣의 淺深을 살펴야 한다. 仲景은 宜下之에는 大承氣湯, 小承氣湯, 十棗湯, 大柴胡湯의 處方을 사용하였으며, 微和胃氣에는 調胃承氣湯, 脾約丸 或 小承氣湯을 조금 투여하는 것이니 微和의 類가 이것이다.”<sup>7)</sup>라 하였고 다시 “大承氣湯은 最緊하고 小承氣湯은 그 다음이고 調胃承氣湯은 그 다음이고 大柴胡湯은 또 그 다음이다. 仲景의 治法에 蕩滌積熱하는데는 모두 湯液을 사용하고 丸子藥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sup>8)</sup>라 하였다. 이는 朱肱의 傷寒論 治法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의 반영한 것이니 이러한 論述을 살펴 보면 그는 汗下 兩法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깊었다고 보여진다. 그는 汗法 中에는 “正發汗” 및 “和解其表”의 두 종류가 있으니 解表時에는 寒熱의 深淺과 藥性의 緊慢을 반드시 탐구하여야 하고, 한가지 약으로만 치료하여 다른 병을 생기게 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和解에 대하여는 “和其榮衛, 以通津液, 令其自解.”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和解에 대한 概念은 後世의 和解에 대한 概念과 구별이 있지만 後世의 和解法이 나타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下法에 대하여 그는 “宜下之”와 “微和胃氣”의 구별이 있으므로 이를 마땅히 “熱氣淺深”을 보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主張은 後世 “下法”을 분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그는 『類證活人書』중에서 “標本先後”의 치료원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7問 中에 “환자가 身大熱한데 도리어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은 熱은 皮膚에 있고 寒이 骨髓에 있는 것이니 仲景은 여기에 治法을 논하고 있지 않지

만 마땅히 먼저 陰旦湯을 주어 寒氣가 풀리면 다시 小柴胡加桂枝湯을 투여하여 溫表시켜야 한다. 환자가 身大寒한데 도리어 옷을 벗고자하는 것은 寒은 皮膚에 있고 熱이 骨髓에 있는 것이니 仲景은 治法을 논하고 있지 않지만 마땅히 먼저 白虎加人參湯을 주어 熱이 풀리면 다시 桂枝麻黃各半湯으로 解表시켜야 한다. 大抵 病에는 標本이 있고 治療에는 先後가 있으니 表寒裏寒한 者는 脈이 沈而遲하고 手微厥하며 清穀을 下利할 것이므로 陰證에 發熱이 있으면 四逆湯, 通脈四逆湯으로 치료하며 表寒裏熱한 者는 脈이 滑而厥하고 口燥舌乾하므로 少陰이 感寒하여 蹇하고 時時自煩하며 不欲厚衣한데는 大柴胡湯으로 下하면 낫을 것이니 이것이 모두 仲景의 숨은 뜻이다.”<sup>9)</sup>라 하였는데, 이는 자기의 臨床 經驗과 傷寒論의 證治思想을 결합하여 “病有標本, 治有先後”의 이론을 세웠으니 後世에 傷寒論 治法을 研究하는데 治療 法則으로 應用되고 있다.

### 3) 成無己

成無己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研究는 그의 著書인 『注解傷寒論』과 『傷寒明理論』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두 서적에는 傷寒論의 治法에 대한 研究는 전하지 않지만 그는 內經의 이론을 바탕으로 傷寒論의 辨證論治를 分析하고 傷寒論 113方의 方義를 說明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傷寒論의 治法에 대한 연구가 자못 크다 할 수 있다.

그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研究 중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傷寒論 治法에 대한 그의 主張이 없으나 方義에서 藥物의 性質과 작용을 分析한 점과 六經病機를 有機的으로 결합시켜 治療方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傷寒論의 辨證論治의 정신을 闡發한 점이다. 예를 들어 桂枝湯을 분석한 것을 보면 “桂枝湯은 본래 太陽中風을 專主하므로 腠理가 致密하고 營衛에 邪가 實하여 津液의 榮이 固하여 寒邪가 심한 경우에는 桂枝湯으로 發散시켜서는 안된다. 반드시 皮膚가 疏濇하고 自汗하며 風邪가 衛氣를 침범하였을 때

6)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148 149.

7)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149 150.

8)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149 150.

9)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116 117.

만 투여할 수 있다. 仲景은 解肌를 輕으로 삼고 發汗을 重으로 삼았으니, 이러한 까닭에 汗, 吐, 下後에 身疼不休한 경우에는 반드시 桂枝湯을 투여해야지 麻黃湯을 투여하면 안되는 이유는 麻黃湯은 發汗을 주로 하기 때문이니 汗, 吐, 下後에 津液이 안에서 소모된 상태에는 비록 表邪가 있을지라도 단지 桂枝湯으로 解肌하여 調和시켜야 한다. 桂枝는 辛熱하니 君藥으로 사용하면 諸藥을 宣導하여 先聘이 되므로 이는 辛甘發散爲陽의 뜻이니, 대개 風邪를 發散하는데는 반드시 辛味로 主를 삼으니 桂枝를 爲君을 한 것이다. 芍藥은 味苦酸 微寒하고 甘草는 味甘平하니 두 藥을 臣佐藥으로 삼은 것은 內經의 '風淫所勝, 平以辛, 佐以苦, 以甘緩之'를 말하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에 芍藥을 臣으로 하고 甘草를 佐로 한 것이다. 生姜은 味辛溫하고 大棗는 味甘溫하니 二物을 使藥으로 삼은 것은 內經의 風淫于內, 以甘緩之, 以辛散之를 말하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에 姜棗를 使로 한 것이다. 姜棗는 味辛甘하여 能히 發散시키지만 전적으로 發散시키는 것이 아니다. 脾는 胃로 津液을 보내니 姜棗의 용도는 脾의 津液을 行하게 하여 營衛를 조화시키는 이다. 麻黃湯에 姜棗를 쓰지 않는 이유는 發汗만 시키는데는 薑棗의 行化를 기다리지 않아도 津液이 통하기 때문이다.<sup>10)</sup>라 했다. 위의 論述에서 그는 桂枝湯 약물의 病理機轉을 분석하고 太陽病中の 傷寒과 中風의 病證과 病理機轉의 不同함을 闡述했으며, 傷寒論中の 解肌와 發汗 兩法の 다른 病理機轉을 闡述했다. 이는 內經의 理論과 傷寒論의 證治經驗을 참고로 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傷寒論의 治法에 대한 理論의 根據를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傷寒論 辨證論治의 내용을 심도있게 밝힌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113方의 方義를 분석하여 解肌, 發汗, 重劑發汗, 解表行水, 蕩滌燥熱, 和解, 吐, 泄熱破結, 攻痞, 止熱, 滲泄 등의 治법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和解에 대한 분석은 宋代에 다른 醫家の 治법과는 다른데, 그의 說에 의하면 “傷寒에

서 邪氣가 表에 있는 것은 반드시 몸을 적실정도로 汗을 내야하며, 邪氣가 裏에 있는 것은 반드시 熱氣를 蕩滌하여 설사시키고, 不內不外인 半表半裏에 있는 것은 發汗이나 吐下시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和解시켜야만이 可하니 小柴胡湯이 表裏를 和解시키는 약이다.<sup>11)</sup>”라 했다. 그는 朱肱의 和解에 대한 認識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으로 後代 和解에 대한 概念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상의 세 醫家 以外에 宋代 傷寒論을 研究한 醫家は 韓祗和, 許叔微, 宋云公, 錢聞禮, 郭雍, 楊士瀛 등이 있는데, 이들의 醫書에는 傷寒論 治法에 대한 論술이 비록 다르지만, 基本은 위의 세 醫家の 觀點에 따라 論述한 것이다.

## (2) 金元代 醫家の 六經病 治法 研究

### 1) 劉完素

劉完素는 河間學派의 우두머리로 內經의 이론과 당시에 성행하는 運氣學說을 결합하여 六氣中 火熱의 邪氣가 致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고, 六氣는 모두 化火한다고 보아 치료시에 寒涼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후세에는 그를 寒涼派로 稱하게 되었다. 그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 역시 傷寒論의 證治思想을 분석함으로써 출발하였다. 그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仲景이 비록 397條와 112方으로 나누었지만 결국은 六證 四治이다.<sup>12)</sup>”라고 하였는데, 그의 六證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太陽病은 標本이 달라 標는 熱하고 本은 寒한데, 從標하면 太陽病으로 發熱하고, 從本하면 膀胱病으로 惡寒하니 頭頂痛 腰脊強은 太陽經病이므로 發汗시켜야 한다. 陽明證은 비록 中氣를 따르지만 標는 陽이고 本은 實이니 從標하면 肌熱하고 從本하면 譫語하니 身熱 目痛 鼻乾 不得臥는 陽明經病이므로 解肌시켜야 한다.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傳하는 것은 表裏之傳이 아니니 譫語는 從本하여 實이 된 것이므로 下便시켜야 한다. 少陽病은 標는 陽이고 本은 火이니 從標하면 發熱하고 從本하면 惡寒하며 앞에

10) 成无己. 傷寒明理論·卷下, 香港, 宏業書局. 1980. p2.

11) 成无己. 傷寒明理論·卷下, 香港, 宏業書局. 1980. p13.

12) 劉河間. 傷寒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19.

는 陽明이 있고 뒤에는 太陰이 있으니 胃脇痛 耳聾 往來寒熱은 少陽經病이므로 和解시켜야 한다. 太陰病은 標는 陰이고 本은 濕이니 從標하면 身目黃하고 從本하면 腹脹滿하니 腹滿而噎乾은 太陰經病이므로 泄滿下濕시켜 從本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少陰病은 標는 陰이고 本은 熱이니 從標하면 爪甲青而身冷하고 從本하면 脈沈而發渴하니 口燥舌乾而渴은 少陰經病이므로 溫表下本시켜야 한다. 厥陰病은 원래 厥陰의 中氣는 마땅히 溫해야 하니 煩滿囊縮은 厥陰經病이므로 熱이 있으니 마땅히 辛苦下之시켜야 한다.<sup>13)</sup>이다. 이는 그가 傷寒論 六經病을 분석한 基礎위에 運氣學說의 標本中氣理論을 運用하여 六經病의 治法을 發汗, 解肌, 下便, 和解, 泄滿下濕, 溫表下本, 辛苦下之 등의 7法으로 歸納시킨 것이다. 四治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桂枝湯 麻黃湯으로 發汗시키는 것은 邪氣가 皮膚에 있는 것을 땀을 내서 發散시키는 것이요, 葛根湯 升麻湯은 가볍게 위로 升發시키는 것이요, 承氣湯 陷胸湯은 下者 因而竭之法이요, 瀉心湯 十棗湯은 中滿을 泄하는 법이요, 瓜蒂散 梔子豉湯은 高者 因而越之法이니 이 四法의 輕重에 밝아야만 傷寒病을 治療하는 繩墨으로 삼을 수 있다.<sup>14)</sup>”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아 그는 傷寒論 중의 汗, 吐, 下 三法과 攻下法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六氣皆從化火”와 “治療多用寒涼”의 思想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써 후세의 河間學派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외에 劉完素는 辛涼之劑로 發表하는 治法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내가 스스로 雙解散과 防風通聖散의 辛涼한 方劑를 創方하고 仲景의 法인 桂枝湯 麻黃湯의 發表之劑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五運六氣가 바뀌어 世態와 居處도 변화하였으니 기후는 항상 뜨겁고 사람은 항상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은 陽에 속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陰에 속하니 內外가 모두 움직이고 흔들리므로 辛溫大

熱之劑를 峻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sup>15)</sup> 그의 이러한 견해는 內經과 傷寒論에 대한 研究 위에 자기의 臨床經驗을 결합시킨 것으로써 더욱 傷寒論 治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는 內經 理論을 결합시켜 傷寒論의 表裏緩急 治療原則을 論述했는데, 그의 著書인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傷寒의 治法에는 먼저 表裏를 논하고 다음에 緩急을 논하였는데, 三陽病은 表가 急하고 裏는 緩하며 三陰病은 裏가 急하고 表는 緩하다. …脈浮하면 汗法을 쓰고 脈沈하면 下法을 쓰니 脈浮에 汗法을 急히 하고 下法을 緩하게 하는 것은 三陽病이 表病이기 때문이요, 脈沈에 下法을 急히 하고 汗法을 緩하게 하는 것은 三陰病이 裏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麻黃湯은 急이라 말하며, 麻黃附子細辛湯은 緩이라 말한다. 內經에서 이르는 ‘漬形以爲汗’은 汗法의 緩한 것이니 裏病의 表證이며, ‘在皮者汗而發之’는 汗法의 急한 것이니 表病의 表證이다. 急히 發汗시킬 것은 太陽이고 緩하게 發汗시킬 것은 少陰이니 이것은 臟腑가 서로 應하기 때문이다. 가령 麻黃附子細辛湯은 少陰證에 사용하니 發熱하고 脈沈하지만 無汗하므로 漬形以爲汗하여야 하며, 麻黃湯은 太陽證에 사용하니 頭頂痛 腰脊強 脈浮無汗 裏和하므로 皮膚에 邪氣가 있는 것은 汗而發之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內經의 ‘內傷病은 緩하게 치료하고, 外感病은 急하게 치료한다.’는 뜻을 따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6)</sup>

이러한 劉의 인식은 傷寒論의 六經에 모두 表裏의 구분이 있고, 별도의 脈에 있어서 脈浮者는 마땅히 發汗하고, 脈沈者는 마땅히 瀉下한다는 것이며, 汗下兩法을 사용할 때에는 三陽은 表에 속하니 마땅히 發汗은 急하게 하고 瀉下는 緩하게 해야하며, 三陰은 裏에 속하니 마땅히 瀉下는 急하게 하고 發汗은 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急히 發汗할 것은 太陽이니 麻黃湯으로써 汗而發之하고, 느슨하게 發汗할 것은 少陰이니 麻黃附

13) 劉河間. 傷寒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19.

14) 劉河間. 傷寒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19.

15) 劉河間. 傷寒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20.

16)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40

子細辛湯으로 漬形以爲汗해야한다. 여기에서 劉는 傷寒論의 證治經驗을 結合시키고, 內經중에서 말한 ‘臟腑病을 치료할 때는 느리게 하고 外感病을 치료할 때는 급히 해야한다<sup>17)</sup>’는 原則을 발전적으로 闡發했으며, 汗法 中의 急汗과 緩汗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는 前代에 비하여 상당히 발전한 것이다.

## 2) 王好古

王好古는 金元대의 易水學派의 傑出한 傳人이다. 일찍이 東垣과 더불어 易水學派의 創始者인 張元素를 스승으로 삼았으며, 후에 李東垣에게 修學하여 易水學派의 眞諦를 深得하게 되었다.

그는 治法을 運用함에 있어서 易水學派의 倡導가 되었는데, 즉 運氣의 盛衰變化와 臟腑의 寒熱虛實의 病機를 분석하여 治法을 연구할 때에 內傷病뿐만 아니라 동시에 外感病을 중시했는데, 그의 저서인 『此事難知』에 그와 東垣의 傷寒論研究가 비교적 집중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보면 王은 傷寒論治法問題와 六經分證의 基礎 위에서 臟腑의 寒熱虛實을 結合시켰고, 治療規律을 연구했으며, 아울러 藥물의 性味效能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治法의 病理機轉을 한층 발전시켰다.

그는 太陽病의 治法을 연구할 때에 臟腑經絡 및 病邪의 標本으로부터 출발하여 太陽證의 主要 治療規律을 총괄하고, 麻黃湯 桂枝湯 五苓散의 藥理作用을 분석하여 發汗 解肌 利小便 등의 病理機轉을 발전적으로 闡明했다. 그가 太陽證의 標本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가령 太陽證에서 傷寒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데 標本에는 두 가지 說이 있으니, 臟腑로 말하자면 膀胱은 本이 되고 經絡은 標가되며, 邪氣로 말하자면 먼저 病이 든 것이 本이 되고 뒤에 病이 든 것이 標가 되니 여기에서는 表가 먼저 病이 들었으니 卽 本이 되고 뒤에 膀胱으로 轉入하였으니 本이 도리어 標가 된다. 이는 바로 邪氣가 침범한 것의 標本이니

治療는 마땅히 邪氣 침입의 標本을 따라야한다.”<sup>18)</sup>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太陽證은 밖으로 寒邪를 감축하여 먼저 標인 經絡을 손상하였으니 經絡의 病은 本이 되고, 뒤에 本인 膀胱으로 轉入하였으니 膀胱의 病은 標가 되니, 治病는 病的 標本을 따라서 立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太陽篇中의 “太陽에 邪氣가 들면 發汗시키고, 내려가면 證에 따라 제거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한 것이다. 이는 病이 먼저 經絡으로 들어가 그 위치가 높으니 本이 되므로 마땅히 發汗시켜야 하고, 뒤에 膀胱으로 들어가 그 위치가 낮으니 標가 되므로 마땅히 證에 따라 제거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그는 太陽證의 主要 治療原則을 發汗 利小便으로 보았으니 그의 太陽證에 대한 治療規律은 후세에 미친 영향이 크다 할 수 있겠다.

또한 그의 麻黃湯 桂枝湯의 작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麻黃湯 桂枝湯은 비록 모두 解表의 汗劑일지라도 단지 그 病理機轉이 같지 않다. 麻黃湯은 腠理를 열어 發汗하는 것에 중점이 있고, 桂枝湯은 桂枝가 通血脈하여서 營衛가 調和롭게 되어 自然히 汗出하게 하여 邪氣는 제거되고 定氣는 實해져서 땀이 그치게 된다고 하였다. 五苓散의 작용에 대해서는 독한 寒氣가 經絡을 따라 膀胱으로 들어간 것을 치료한다고 보아 太陽病 裏證을 瀉下시키는 약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藥理作用에 대해서 “桂枝는 陽中의 陽이고 茯苓은 陽中의 陰이므로 서로 이끌어 내려가서 膀胱으로 들어가 邪氣를 내쫓는다.”<sup>19)</sup>고 하였다. 이는 개개 藥물의 藥理作用을 따를 뿐만 아니라 傷寒論 中의 解肌 發汗 利小便의 病理機轉을 비교적 심도 있게 闡明한 것이니, 후세 醫家들이 辨證論治 思想을 따라서 傷寒論의 治法을 연구함에 있어서 진일보시키는 先例가 되었다.

18) 王好古. 此事難知, 서울 대성문화사, 1983. p.279.

假令太陽證 傷寒自外入 標本有二說 從主言之膀胱爲本 經絡爲標 以邪言之 先得者爲本 後得者爲標 此標先受之 卽是本也 後入于膀胱 本却爲標也 此乃客邪之標本也 治當從客之標本

19) 王好古. 此事難知, 서울 대성문화사, 1983. p.279.

17) 治主以緩 治客以急

이 외에도 그는 六經病의 구체적인 治法을 연구함에 있어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陽明病의 治療에서는 益津液을 대단히 강조했으며, 三陰證에 모두 汗法이 있다고 하여 三陰證에서 아직 臟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 太陰證에는 桂枝湯, 少陰證에는 麻黃附子細辛湯, 厥陰證에는 當歸四逆湯으로 發汗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上述한 兩家외에 金元時期에 많은 醫家들이 있었는데, 張從政, 朱震亨, 馬宗素, 劉洪, 王履, 羅天益등도 역시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으나, 단지 六經病 治法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兩家의 說을 따른 것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다.

### Ⅲ. 考察 및 結論

晉唐시기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로는 王叔和는 當時에 盛行하던 “汗, 吐, 下, 溫, 灸, 刺, 水, 火”의 8法을 운용하여 傷寒論 證治 經驗을 歸納하였고, 孫思邈은 자신의 臨床경험에 근거하여 傷寒論의 太陽病篇을 “以方名法, 按法類證”하였는데 이것들이 이 시기의 傷寒論 六經病 治法에 대한 대표적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원시적이고 역사적인 局限性이 있었지만 中國醫學의 傷寒論 六經病 治法 研究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는 실로 後世에 治法 研究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宋代 傷寒論治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한 醫家로는 龐安時, 朱肱이 있는데, 그들은 傷寒論의 治療原則을 闡發하고 六經病을 分析歸納하여 구체적 治法을 제시하는데 공헌하였다. 龐安時는 人 地 時에 따라 治療를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을 闡發했고, 朱肱은 “病有標本, 治有先後”의 治療原則을 傷寒論과 결합시켜 後世 醫家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金元代에 이르러 成无己 劉完素 王好古 등은 內經의 내용을 각자의 사상에 따라 分別하여 辨證論治에 따라 六經病의 治療規律를 總結하고 證候와 方藥을 동시에 분석하고, 구체적인 六經病

治法의 病理機轉을 闡明하여 創案한 바가 있다. 그 중에서도 成은 內經으로 傷寒論을 解釋하고, 解肌 發汗 重劑發汗 解表行水 和解 攻痞 止熱 滲泄 등의 治法을 총결하여 後世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의 길을 만들어 주었으니 和解의 개념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명확해졌고 지금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劉完素는 主火論을 제창하여 傷寒論의 汗 吐 下 3法의 연구를 중시하고 辛涼解表法을 創立하여 後世 溫病治療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王好古는 易水學派로써 臟腑의 寒熱 虛實 理論을 운용하여 藥味 效能을 결합하고 傷寒論 六經病의 治療規律를 探索함으로써 陽明病의 益津液하는 治療原則을 강조했으며, 後世의 傷寒論治法의 연구에 啓發한 바가 많다. 이상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임상의학을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後世에 傷寒論 治法 研究의 기초가 되었다.

### 參考文獻

1.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30.
2.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影印本
3. 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3.
4. 成无己 註解,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5. 成无己 註解, 仲景全書·註解傷寒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6. 孫思邈. 備急千金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孫思邈.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7.
8. 王好古. 此事難知, 서울 大성문화사, 1983.
9. 喻嘉言, 醫門法律·上, 서울, 東南出版社 影印, 1986.
10.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1.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影印, 1976.
12.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4.

